

# 결과보고 기안 첨부 양식

<b>도서제목</b>	사람, 장소, 환대
<b>키워드</b>	상호작용, 사람, 성원, 통합
<b>본 것</b> ▼ <b>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b>	이 책은 '사람'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환대) 사람이 된 것인가? 조건부의 환대도 환대라고 할 수 있는가? 환대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환대는 아니지 않을까? 이들이 이 책이 제기하는 질문들이다. 사람, 장소, 환대, 이 세 개념은 맞물려 서로를 지탱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고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저자는 절대적 환대 없이는 사회가 생겨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절대적 환대의 필요성을 증명하려 한다.
<b>깨달은 것</b> ▼ <b>나의 이해</b> · <b>해석</b>	사람, 장소, 환대를 키워드로 '사람됨'의 개념을 '성원권'의 확보란 문제로 조명해준다. '사람'이란 '장소(place 혹은 position)'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그에게 허용하는 위치와도 직결된다. 이는 곧 사람들이 위치의 인정과 확인을 위해 수행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다. 그리고 그 위치를 허락받지 못한 이들, 혹은 그 위치의 상승과 하강에 결부된 다양한 이슈를 들여다 볼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저자는 책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이론적 측면을 소상히 정돈한 다음, 이 관점을 인격의 문제, 우정의 문제, 환대의 문제, 신성함의 문제 등에 적용해 보인다. 이 각각의 주제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첨예한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이슈들이다. 저자는 목소리 한번 드높이는 일 없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장악한다. 매우 많이 배우고, 수긍했다.
<b>적용할 것</b> ▼ <b>개인</b> · <b>업무</b> · <b>조직</b>	왜 환대가 필요한지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모욕의 사례는 너무 많다. 여성을 향해, 이주노동자를 향해, 저소득층을 향해, 나와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젊은이가 노인을 향해, 노인이 젊은이를 향해 서로 차별하고 모욕한다. 사람다움의 기본을 잊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모욕은, 얼핏 나 자신을 높이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어디선가 뭔가에 의해 배척당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명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 환대와 통합으로 가는 여러 논쟁들은 필요하다. 서로가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 도시와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좋은 것/나쁜 것, 드러난 것/숨겨진 것, 공식적인 것/비공식적인 것 등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영역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공동체는 개인의 영역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그런 개인들의 영역들이 서로 공존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드는데 환대가 작용한다.

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정 소 익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